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3호
2017. 6. 14
여름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이종찬 편집인:홍성덕
TEL: 02)734-8851 ~2 FAX: 02)722-0251 <http://cafe.daum.net/hongbumdo>



봉오동전투 전승 제97주년 기념 국민대회 성대히 개최 이종찬 이사장, “항일의병과 광복군의 독립운동 정신 계승” 강조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조계사 경내에 있는 불교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오동전투 전승 제97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념사업회와 남양홍씨남양군파대중중회(회장 홍성중)가 공동 개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재향군인회가 후원했으며, 의병도시협회의 회장인 이근규 제천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임원들과 대한민국해군 홍범도함 승조원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박재옥 기획국장 사회로 시작된 국민대회는 식전행사로 권도혁 선생이 선도하는 별무리예술단의 사물놀이를 공연한 후 문준진 사무총장이 홍범도장군의 연혁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이종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행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킨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이었다’고 말한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의병에서 시작하여 독립군과 광복군들이 주권의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1919년에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했다는 역사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또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이 아직도 여전하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부조리를 조속히 청산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유철 광복회 회장은 나중화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봉오동전투를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선열들의 화합과 협력의 정신을 본받고 고양시켜 흐트러진 국민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근규 제천시장은 “제천은 의병의 고장으로 구한말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인석 장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시작되었던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홍범도 장군도 을미의병에 참여하여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고 술회하였다.

이어서 강정호 홍범도함 함장은 장군께 드리는 편지를 통하여 “봉오동에서 장군께서 이끈 독립군이 일본의 정예부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것은, 홍범도 장군의 부하를 섬기는 리더십과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과 견줄만한 산악지형 포위전술, 그리고 강인한 애국애족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홍범도 장군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축사가 끝난 후 송봉섭 선생이 지휘하는 시그니처 뮤지컬 합창단이 “날으는 홍범도장군가” 등을 합창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하여 “우리의 소원”을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성중 남양홍씨남양군파대중중회 회장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국민대회의 막을 내렸다.

봉오동전투 전승 제97주년 기념 국민대회 이종찬 이사장 기념사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이었다.” 대통령의 역사인식으로 “건국절” 논란은 끝내야



오늘 우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97주년을 맞아, 봉오동전투 승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세기고, 홍범도 장군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97년 전, 옥일승천의 기세로 만주를 침범했던 일본 정규군은 우리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하여 호기 있게 봉오동 골짜기로 진격했습니다. 이를 대항하여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 열세했던 우리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치밀한 전략과 독립군의 높은 사기, 그리고 유리한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무찌르고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비록 열세한 독립군이지만 막강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전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킨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항일의병에서부터 시작하여 독립군과 광복군이 주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확고한 역사인식을 공표한 것으로 1948년에 건국했다는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은 이러한 부조리를 조속히 청산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립운동정신은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

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투철한 민족정신과 역사인식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은 독립운동을 스스로의 주체적인 결단에 따라 참여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은 투철한 희생정신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확실하게 계승해야 되겠습니다.

20세기 초 전 세계의 70% 이상의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 반제국주의, 반식민지 해방투쟁을 전개했지만, 우리 선열들처럼 투철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나라나 민족은 없었습니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종전 이후 독립을 보장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을 정도로 강경하게 해방투쟁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인이 사는 곳에서는 모두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40여개 나라에서 한국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처절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름 없이 헌신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과 무장독립투쟁에 참여하셨던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땀땀하게 이어받아, 호국의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적인 철칙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해군 홍범도함 승조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함의 모토는 “일발필살”의 필승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기도가 폭로되어 치명적인 역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전략전술입니다. 홍범도장군은 부하를 덕으로 지휘하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홍범도함은 이러한 홍범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필승, 홍범도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남양홍씨 종친회 임원 여러분과 이 행사를 후원하신 국가보훈처, 광복회, 재향군인회 임원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범도함 해군 장병 여러분의 무운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내빈 여러분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유철 광복회장 축사

봉오동전투는 청산리대첩과 함께 무장독립운동사의 금자탑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7년 전인 1920년 6월 7일, ‘바로 오늘’은 여천(汝千) 홍범도(洪範圖) 장군 등이 이끈 독립군 연합군단이 중국 동북지역 봉오동 골짜기 전장에서 일본군 정예부대를 격파한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산리 대첩의 서막을 열었던 봉오동 전투는 청산리 대첩과 대전자령 전투와 더불어 중국 동북지역 3대첩의 하나로 우리 민족이 항일 무장 독립투쟁사에서 금자탑을 쌓은 전투입니다.

이런 봉오동 전승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우리 후세들이

배워야 할 점은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봉오동 전투는 함께 연합부대를 지휘했던 최진동 장군과 안무 장군은 물론, 홍범도 장군 개인의 승리가 결코 아니라, 전투에 참여한 700여 명의 대한북로독군부 대원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연합부대로 편성된 각 지휘관들이 전공(戰功)을 세워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 보다 서로 간에 화합과 협력을 통해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의 화합과 협력의 정신이야말로, 무한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의 정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근규 제천시장 축사

제천은 유인석 장군의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의병의 고장



봉오동전투는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최초로 본격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전투로서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 승전을 계기로 독립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큰 의미가 있는 전투입니다.

돌이켜 보면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가혹한 무단통치를 행했을 때,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신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헌신으로 오늘날과 같이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의병의 고장으로 구한말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발생했을 때, 의암 유인석 장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를 지휘하신 홍범도 장군께서는 유인석 의병장의 의병에 참여하여 더욱 깊은 역사적 의미와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제천시에서는 의병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2015년도에 의병활동과 관련이 있는 전국 39개 시군구와 함께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대대적인 의병 자전거 순례단을 결성하여 전국 의병도시를 순례 하였고, 지난 3월에는 의병학교 운영 및 대한민국 의병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대대적인 의병선양사업을 펼치면서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홍범도함 강정호 함장, 홍범도 장군님께 드리는 편지

홍범도 장군의 기백으로 영원토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여



봉오동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예부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였을 뿐 아니라, 무기수준 또한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부하를

섬기는 리더십과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과 견줄만한 산악지형에서의 포위전술, 그리고 가족의 죽음보다 조국의 독립을 먼저 생각했던 강인한 애국애족 정신을 발휘하여 승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과거를 잊고 사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 장군께서 목숨 걸고 지켰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홍범도함은 장군께서 부하들을 대상으로 강조하셨던 ‘소지관철(素志貫徹)’의 의미와 같이, 기념사업회와의 좋은 인연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홍범도함 승조원들의 정신적 전투력으로 승화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범도함 승조원 모두는 홍범도함이 국토방위의 최선봉으로 최고의 잠수함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일본군을 떨게 하신 장군의 기백으로 영원토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봉오동전투 전승 제97주년 기념 국민대회 이모저모



〈식전행사 사물놀이 공연〉



〈봉오동 전승 기념식 정면 모습〉



〈시그니처 뮤지컬 합창단의 축하 모습〉



〈참석자 전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모습〉



〈홍성중 회장 선창으로 만세 삼창 모습〉



〈기념식에 참석한 흥범도합 승조원〉



〈기념식에 참석한 삼일동지회 회원들〉



〈기념식에 참석한 애지모 회원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의 뜻을 배워

홍범도함 승조원들은 6월 7일 오후, 봉오동전투 전승 제 97주년기념 국민대회가 끝난 후 홍헌일 기념사업회 감사(서대문형무소 원형복원연구회장) 안내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관람하였다. 역사관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독립을 향한 투쟁의 역사가 전시된 공간이다. 온 국민들이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부끄러운 지난날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뜻을 배우는 교육현장으로 승조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일제에 의하여 신축된 경성감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다. 1945년 해방이후 서울형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함에 따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1998년에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승조원 일행은 홍헌일 감사의 해설로 역사전시관과 중앙사, 그리고 옥사와 공작사, 한센병사, 사형장, 시구문, 여자감옥(구 유관순 지하감옥) 등을 차례로 관람하였다.



안보강좌, “국군의 연원을 제대로 복원해야 된다.” 수강

강정호 함장을 비롯한 승조원 일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을 마치고 종로구 종로 1가에 있는 뷔페식당 “더 뷔페”로 이동하여 특별 소양강좌를 실시하였다. 강좌의 주제는 “국군의 연원을 제대로 복원해야 된다.”로 기념사업회 황원섭 기획이사가 강의하였다.

황 이사는 국방부 홈페이지지를 인용, 우리 국군은 “8·15해방 이후 미군정에서 개설한 군사영어학교와 국방경비대에서 시작했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당시 군사영어학교는 대부분 일본군 출신이었고, 이들이 국방경비대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국방부의 주장에 따른다면 우리 국군은 미군이 창설하고, 일본군의 후예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혔고, 임시정부에서는 1940년 10월 15일 국무회의의 한국광복군사령부 성립보고서에서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날부터 의병투쟁을 시작하여 그날이 독립전쟁의 개시일이며, 광복군의 창립일”이라고 의결하였다. 또한 1948년 정부수립 후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이 훈령 제1호로 “국군의 정신은 광복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표명했다.

그러므로 국방부에서는 국군의 연원을 항일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군맥을 제대로 복원하여, 우리 국군이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신전력을 진작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좌가 끝난 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초청한 홍범도함 승조원을 위한 만찬을 베풀어졌다. 기념사업회에서는 홍성덕 부이사장, 홍헌일 감사, 이미자 이사, 황원섭 이사, 문준진 사무총장, 박재옥 국장, 김진중 월간 순국 편집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홍범도함, 의병도시 제천시와 자매결연 체결

홍범도함과 제천시는 6월 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근규 제천시장과 강정호 홍범도함 함장·홍성덕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김봉수 보훈단체협의회회장·홍성봉 제천 단양 남양홍씨종친 회장을 비롯하여 의병유족, 홍범도 승조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천시에서는 소지관철(素志貫徹) 액자를, 홍범도함은 잠수함 모형을 기념품으로 교환했다. 소지관철은 ‘처음 세웠던 순수한 뜻을 끝까지 관철한다’는 뜻으로 홍범도 장군이 좋아했던 사자성어이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의병 대장 유인석 장군과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의병의 도시 제천시와 대한민국 해군 홍범도함으로 10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기념사업회 소식

임기만료에 따른 법정 임원 총원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2017년도 회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4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감사와 이사를 보선하여 법원에 등록하였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홍헌일 감사는 유임하고, 김창환 감사의 사퇴에 따라 박형상 변호사(전 중구청장)를 신규로 선임하였다.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종찬, 홍성덕, 류병균, 손양호, 이영철, 홍성중, 홍중표 이사 등은 유임되고, 김희일 이사가 사퇴함에 따라 신규로 이미자 종로구의회의원과 홍재구 (사)당성사적보존회 이사장을 법원에 등록하였다.



〈박형상 감사〉



〈이미자 이사〉



〈홍재구 이사〉

홍성덕 부이사장 등 임원, 제천시· 홍범도합 자매결연식에 참석

지난 6월 8일 제천시청에서 개최된 제천시(시장 이근규)와 홍범도합(함장 강정호) 사이에 체결된 자매결연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홍성덕 부이사장, 김유진 고문, 이영철 이사, 문준진 사무총장과 김진중 월간 “순국” 편집국장이 다녀왔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홍 장군이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제천의병장인 유인석 장군과 함께 철원 보개산 전투에 참전했고, 1909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유 장군이 도총재로 대한13도의군을 조직할 때, 도총소위원으로 참여한 연고로 작년부터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제천의병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자매결연식에 참여한 홍 부이사장 등 임원 전원을 초청하여 오찬을 대접하였다.



〈제천행사 참석(시장, 함장, 임원)〉

기념사업회 임원 친목 모임 개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원들은 작년 12월부터 기념사업회를 활성화하고 임원들 간에 원만한 소통과 친목을 위하여 격월제로 친목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마마설농탕집에서 이영철 이사 초청으로 만찬을 함께하였다. 그날 모임에는 홍성덕 부이사장과 홍헌일 감사, 이영철, 이미자, 홍성중, 황원섭 이사와 문준진 사무총장, 박재옥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친목회〉

우당기념사업회, 우당 이회영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념사업회 이종찬 이사장의 조부이신 우당 이회영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1일 중구 명동에 있는 서울YWCA 회관 강당에서 우당기념사업회(회장 홍일식) 주최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유철 광복회장 등 관련단체 임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기념식이 개최된 YWCA회관 자리는 이회영선생 6형제분이 태어난 생가 터로 숙연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기념우표〉

한편 지난 5월 19일에는 경복궁 경내에 있는 고궁박물관에서 15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의 주제는 “이회영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로 그동안 연구해 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였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개최된 회의에는 장석홍 국민대 교수, 박성순 단국대 교수, 김명섭 단국대 겸임교수, 손과지(孫科志) 중국 복단대 교수, 황춘화(黃春華) 중국 길림성 교원연수원 교수 등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탄생일인 4월 21일자로 “우당 이회영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전세계 200여 개국에서 발매하였다.

한편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특별 전시관에서 “우당 6형제 기획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자 이이녕 / 전인교육사 발행

소설로 읽은 일제36년사 7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혈전”



이 책은 소설로 읽은 일제36년사 7권으로 책이름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혈전”이며, 저자는 이이녕, 전인교육사에서 2012년에 발행한 일종의 역사물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소설 일제36년사 중의 한 책으로 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혈전’은 엄연한 사료와 객관적인 역사적 고증 그리고 생존한 독립투사들과 그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저술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된 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비판 없이, 청산리전투에서 철기 이범석의 편향된 글을 옮겨 쓰고 있어 아쉬운 일면이 있다.

비록 소설이라 하더라도 역사물은 사실(史實)과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전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연한 관행이다. 그러나 2016년 대한교육문화원에서 발행한 개정판에도 이 문제를 정정하지 않아, 사회적인 비난의 정도를 넘어 법적인 소추의 대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이 책은 모두 4장 29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항전하는 포수(砲手)에서 동아일보의 고고성, 삼둔자 촌의 피비린내와 봉오동 전투에 관해 기술했는데, 특히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주도한 것으로 전황과 더불어 전황도 까지 넣어 23쪽에 거쳐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였다.

제2장 미국 국회의원 시찰단 제목 하에 동아일보의 항거, 동아일보 특과원, 장덕수의 사설, 스몰 단장의 불만, 그리고 헬스맨의 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훈춘 대학살은 비밀회의, 탄로 난 음모, 모략작전 1호 그리고 순국지사 장덕준에 대하여 기술했다.

마지막 제4장, 청산리 대혈전에서는 중국인의 의리, 송림평의 밤, 호연장담, 타오르는 모닥불, 죽음을 향한 전진, 감격의 첫 승리, 철수작전, 갑산촌의 환호성, 장렬한 최후, 무자비한 대학살, 끝으로 흑하사변에 관해 이 책의 1/4에 해당하는 69쪽에 걸쳐 기술했다.

특히 제4장 청산리 대혈전에서는 홍범도의 참전과 전투 기록은 전무하고 사령관 김좌진과 연성대장 이범석의 전승기록만 기술한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다만 이범석의 제2제대 6백 명은 일본군을 무려 2천2백여 명이나 사살한 대전과를 거뒀고, 아군의 희생은 불과 19명뿐이라는 눈부신 승리를 거둔 것이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와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는 대한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벌인 최초의 정규전 전투이며, 최초의 대승리였다”이라고 기술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만 참전했을 뿐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과 이범석이 이룬 전과였다는 것이다.

이 책은 2012년 출판되었는데 낡은 사료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새로운 연구를 도외시키고 있다. 즉 독립군 출신으로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이었던 철기 이범석의 회고록 우등불(1971. 12월 출판)에서 자기 공적을 높이기 위해 홍범도 장군을 비하하고 폄하하였다. 청산리 전투 당시 연성대장 철기는 20살 때 이였고, 백야는 31세, 그리고 여천은 52세였다.

철기의 회고록을 보자. “분명히 밝힐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첫째는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싸움에 참여하려다 그만두고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타격을 받았다. 둘째는 흔히 사료에 나오는 지청천 장군과 청산리싸움 운운은 거리가 멀다. 그는 청산리 싸움에 가담한 일이 없다. 셋째로 일인이 사진으로 담은 무기는 홍범도 부대가 집단적으로 뺏긴 무기이다. 후일 홍범도 씨는 러시아 이만시로 넘어가서, 러시아에서 일크즈크파의 공산당원이 된 사람들의 권유를 들어, 공산당원이 되었다. 허나 그는, 그 속에서 할 일도 없었고, 이름만 빌려 준 셈이 되었다. 그 후 그는 자유시 브라고베센스크 부근에서 방황하다가, 병들어 불쌍하게 사망하고 말았다.”고 왜곡하고 있다.

불쌍하게 별세한 여천은 75세로 타계했고 화려하게 살다간 철기는 73세였다. 철기 이범석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누리기 위하여 역사를 왜곡했지만, 역사학자들은 홍범도 장군을 한국독립전쟁의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고, 여천은 소지 관찰하고 옳고 바르게 살다 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회장은 6월 12일자 동아일보와의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관련 인터뷰가 32면 전면에 게재되었다. 기념관은 서울시의 협조로 서대문독립공원 부지에 있는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건립하게 되었다. 이 이사장은 임시정부기념관은 분단 이전의 역사임로 국민화합과 남북통일의 단초가 된다고 말했다.

○홍성덕 부이사장



칼럼니스트이며 테너 가수인 부이사장은 희수기념 칼럼집 “네 손자의 나무” 출판기념회와 작은 음악회를 오는 7월 25일(화)18시 30분, 서울마포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음악회에는 홍성덕 부이사장 부부와 자손들이 출연한다.

○김유진 고문



함경북도 북청 상거서장학회장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5일, 의정부 밀랍동에서 함경북도 북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홍헌일 감사



서대문감옥원형보존연구회장은 지난 5월 16일 은평문화원에서 시행하는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전문과정반에서 “서울의 왕릉”등을 주제로 21회에 걸쳐 향토사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영철 이사



도봉문화원장은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4박 5일간 문화원 회원들과 함께 몽골 역사문화 탐방을 하였다. 도봉문화원에서는 매년 해외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다.

○홍재구 이사



당성사적보존회 이사장은 6월 14일, 수원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성사적보존회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17호인 화성당성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홍성종 이사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중회장은 산하 지역 중친회장과 유적지 탐방계획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서울과 경기, 대구지역의 지회장들과 당성유적지를 탐방하고 참관하였다. 당성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삼국시대 성곽이다. 한편 봉오동 전승 97주년 국민대 회에 우산 300개를 기증하였다.

○황원섭 이사



(사)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이사는 5월 25일 광복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재진)에서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주관하는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탐구한다”라는 대주제의 역사강좌에 초청되어 광복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우당 선생의 독립운동과 교훈”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홍이표 이사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 대표는 5월 18일부터 3박4일간 회원들과 함께 베트남 다낭에서 MT를 개최하고, 5월 27일에는 제7차 애지모 페스티벌 행사를 500여명의 회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김진중 자문위원



월간 “순국” 편집국장은 제7회 의병의 날을 맞아 5.31~6.1까지 의병유적지 답사를 다녀왔다. 의병정신선양회(회장 오일환) 회원 36명은 경북 영천 삼남의진 사적지로 정용기 대장과 정환직 선생을 위시한 삼남의 병영위를 모신 충효제와 묘소를 참배하고, 안동김씨 600년 세거지인 사촌마을과 의성의병기념관을 둘러보았다. 다음날에는 청송의병기념관에서 거행된 제7회 의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김도경 국장



한국여성문예원장의 주관으로 6월 16일 (금) 오후5시, 중구 명동 라운지언식스 바에서 전해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주제로 제10회 명동 시낭송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